청소년 직접 참여 프로그램 발굴 만전

군산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유관기관 합동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26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유관기관 합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1부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2부 청소년유관기관 종합토론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행사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청소년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한 데 모여 행사 기획에서부터 연출까지 지역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청소년박람회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박람회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특색 있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개·폐막식 공식 행사를 전문 아나운서가 아닌 지역 학생 공개모집을 통한 청소년MC를 선정해 역대 최초로 개최지 청소년 사회자가 직접 진행하게 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군산지역 청소년이 직접 구성한 부스·공연 등에는 군산민의 특색을 살린 근대역사 스토리를 담은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평균 15만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전국 청소년들이 군산시에 모여 새로운 꿈을 꾸고,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2005년에 개최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숨은 재능과 끼를 표현하는 청소년 종합 문화 축제로, 단일행사로는 국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청소년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전북도·군산시의 공동주최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등 15만 명의 관광객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성한 볼거리가 예정된 이번 박람회는 누구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50여개의 체험부스가 상시로 운영되며, VR·드론·3D프린터·코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과학체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청소년 모의 선거, 유명 멘토 특강, 아이돌 공연, 사이언스 쇼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농민들 풍년기원 결속 다져

익산시농민회, 영농발대식 개최

전농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회장 한동웅)는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2018년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지난 23일 각급 농업관련 기관과 농민단체 및 농민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낭산면 농업인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신명나는 풍물놀이와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 고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은 익산지역 농업인들의 우리 농업 지키기 결의문 낭독과 각 농민단체 등 농업관련 인사들과 읍면별 회원 상호간 음식을 나누는 등 농민대동 한마당 잔치를 갖고 익산시 농민들의 결속을 다졌다.

영농발대식에 참석한 행사관계자는 "올겨울 혹한기로 인한 시설채소의 난방비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과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가격 불안정, 한미FTA 재협상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이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농도인 익산시의 미래는 농업이고 익산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미래농정국의 신설로 익산농업의 100년 대계의 초석을 마련, 희망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발굴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익산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6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4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희망퇴직을 비관하고 끝내 목숨을 끊은 한 희망퇴직자와 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의회는 이날 "고인의 죽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정부와 지엠에 요청했다.

원광대, 위드 유 운동 실천키로

원광대학교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뜻을 기리기 위한 위드 유(With you)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대학교당 주관으로 지난 21일 교내 숭산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위드 유(With you) 운동 실천식에는 김도종 총장을 비롯해 학생과 교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기도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본인의 이름을 적은 나뭇잎 스티커를 With you 운동 동참 게시판에 붙이고, With you 팔찌 착용을 통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학교당 나상호 교감은 이날 설법을 통해 "혼자 또는 한두 사람이 하면 작은 소리에 그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큰 소리가 되고, 그것을 꾸준히 하면 운동이 되고, 운동이 끊이지 않으면 세상이 바뀐다"며, 많은 구성원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과수농가 외래 병해충 방제 교육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26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과수농가 25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 외래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제 교육은 최근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된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과 같은 외래 병해충의 예방 방법 및 해충별 방제 적기, 농약잔류허용물질 관리제도(PLS)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과와 배나무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의한 화상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기에 적용 약제 처리를 해야 하고, 외래 돌발해충은 월동난 전정을 통한 1차 방제와 약충 시기에 적용 약제를 활용한 2차 방제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농작물에 농약 잔류 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함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농작물 출하 중지 또는 폐기를 해야하므로 농가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사용시기, 살포 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강성옥 군산시장 예비후보, "과잉홍보 자제, 솔선수범 하겠다"

강성옥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최근 과열된 선거운동과 관련 "모든 후보 진영에서 문자, SNS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홍보 전쟁에 휘말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과도한 문자발송으로 시민들의 생활 자체에 불편을 주는 행동은 후보들 모두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다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음을 십분 헤량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강 예비후보 자신의 캠프부터 절제된 통신홍보로 모범을 보일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군산 모 병원 간호조무사가 병원 내 직원들에게 무분별한 명함살포를 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 바, 각 후보 진영 스스로 타 후보를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들부터 위법행위는 없는지 돌아보고 과열양상을 가라앉히자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매니페스토 선거로 정책선거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경쟁후보 모두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운동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고 제안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상반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군산시는 오는 28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구매를 통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근로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인 문구류, 식품류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해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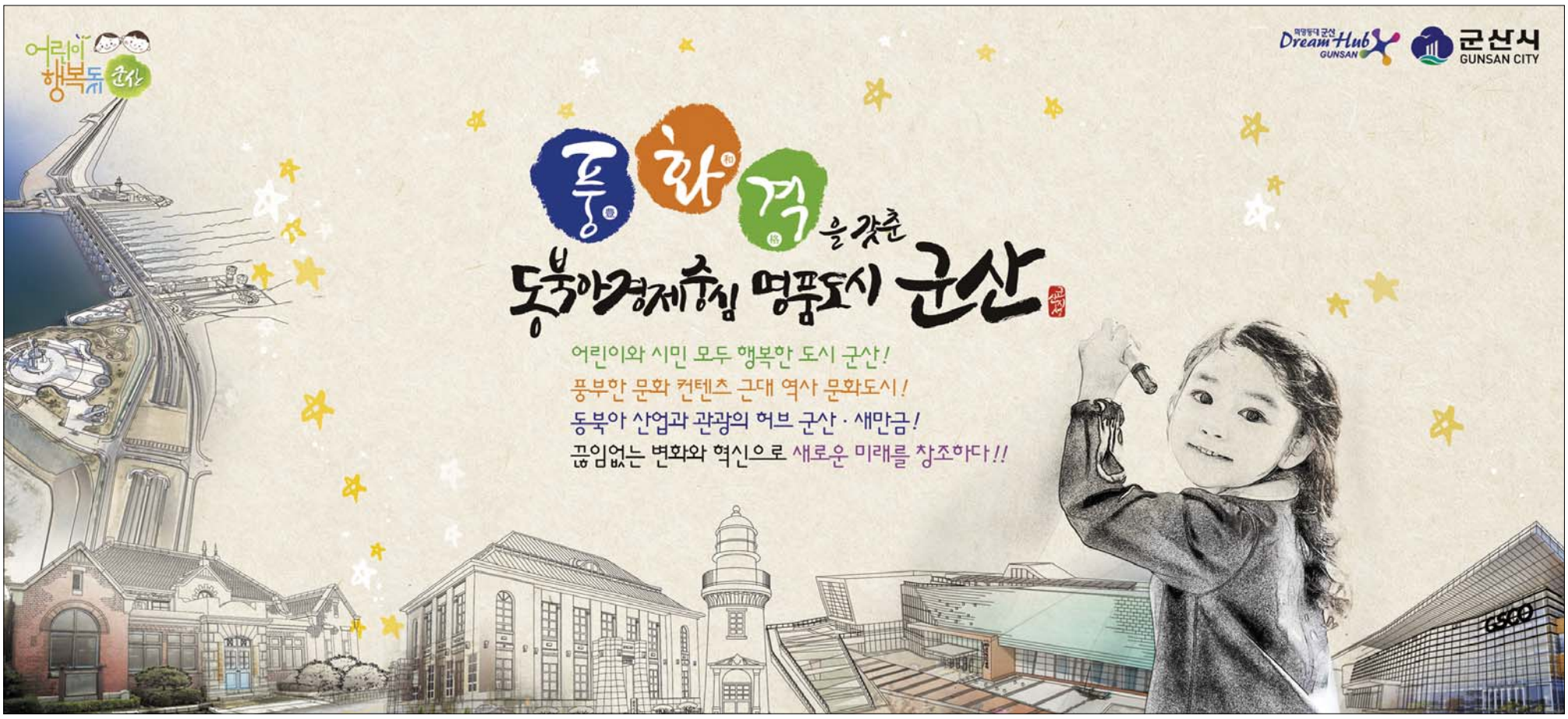
익산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억원 지원

저소득측 학생 조식지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한 2억원을 지원해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간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취약가정 학생·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내 계층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역사문화탐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결식학생 조식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익산시가 지원하는 결식학생 조식지원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출석일수에 맞춰 가정적인 이유로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취약계층 1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아침 식사를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 안정을 조성하여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사업이 지속·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